

• 학습 목표

- ☞ 글을 읽고 중심생각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.
- ☞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며 지시어와 접속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.
- ☞ 글에 실제로 쓰여 있는 내용과, 쓰여 있지 않아 알 수 없는 내용을 맥락 속에서 구별할 수 있다.
- ☞ 표와 그래프에 제시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.
- ☞ 글의 흐름을 파악하여 올바른 순서로 배열할 수 있다.

• 학습 내용

1. 중심생각 찾기
2. 문장호응 이해하기
3.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
4. 표·그래프 자료 정확하게 읽기
5. 글의 순서 파악하기

학습내용

중심생각 찾기

01 중심생각이란?

- 중심생각이란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가장 하고 싶은 말이다.
- 글에는 여러 문장이 나오지만, 그 문장이 모두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.
- 어떤 문장은 핵심 내용을 말하고, 다른 문장들은 그 내용을 예시, 이유, 설명, 수치 등으로 뒷받침한다.

02 중심생각과 세부 정보 구별하기

- 글 속의 예시, 이유, 경험, 수치 자료는 중심생각을 설명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.
- 따라서 특정 사례 하나나 수치 하나만을 그대로 고르면 중심생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
- 예를 들어 “대학생 10명 중 7명이 중고 거래를 이용했다”는 문장은 중요한 정보이지만, 글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 수치 자체가 아니라 대학생들의 중고 거래 이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.
- 즉, 세부 정보는 중심생각을 향해 모이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.

03 중심생각을 찾는 방법

- POINT** 글에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핀다.
- POINT** 그 대상에 대해 글쓴이가 공통으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묶어 본다.
- POINT** 예시나 세부 내용을 빼고도 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된다.



꼭 확인하기

- 중심생각은 글 전체를 통해 글쓴이가 가장 전하고 싶은 생각이다.
- 중심생각은 화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, 그 화제에 대한 핵심 판단이나 설명까지 담아야 한다.
- 예시, 이유, 경험, 수치는 중심생각을 뒷받침하는 세부 정보이다.
- 중심생각을 찾을 때에는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내용을 묶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.
- 보기 중 일부 내용만 다루거나 본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.



[문항 1] 이 글의 중심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동아리 활동은 전공 공부만으로는 배우기 어려운 것을 가르쳐준다.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협업하는 법을 익히게 되고, 처음 만난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법을 배운다.

- ① 동아리는 전공 공부에 방해가 된다
- ②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협업과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다
- ③ 동아리는 반드시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
- ④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해지기는 어렵다

[문항 2] 이 글의 중심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기말고사 기간에는 도서관 좌석이 매우 빨리 찬다. 특히 오전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워 학생들이 일찍부터 줄을 서기도 한다.

- ① 도서관은 아침에만 이용할 수 있다
- ② 기말고사 기간에는 도서관 좌석 경쟁이 치열하다
- ③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
- ④ 줄을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

[문항 3] 이 글에서 다루는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온라인 강의는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다. 그러나 바로 질문하고 답을 듣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소통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.

- ① 온라인 강의의 장점과 한계가 함께 있다
- ②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항상 좋다
- ③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
- ④ 온라인 강의는 없애야 한다

[문항 4] 이 글의 중심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내용만 정리해서는 충분하지 않다. 목소리, 속도, 시선 처리처럼 전달 방식도 함께 신경 써야 청중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.

- ① 발표에서는 목소리만 중요하다
- ② 발표에서는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
- ③ 청중은 발표 내용을 잘 듣지 않는다
- ④ 발표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

[문항 5] 이 글의 중심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에는 시간 관리가 더 나아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.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.

- ① 아르바이트는 학업에 방해만 된다
- ②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
- ③ 공부는 남는 시간에만 하는 것이다
- ④ 아르바이트는 누구에게나 필수이다

[문항 6] 이 글의 중심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조별과제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.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책임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.

- ① 조별과제는 언제나 갈등이 생긴다
- ②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별과제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다
- ③ 조별과제는 혼자 하는 편이 낫다
- ④ 책임은 한 사람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

[문항 7] 이 글의 중심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학교 식당은 정해진 시간 동안 운영되지만, 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. 그래서 식당 운영 시간을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.

- ① 학교 식당은 운영 시간이 너무 짧다
- ② 학교 식당 운영 정보를 학생들에게 더 잘 알려야 한다
- ③ 학생들은 학교 식당을 좋아하지 않는다
- ④ 학교 식당은 이용할 가치가 없다

[문항 8] 중심생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글에 나온 모든 문장이 똑같이 중요하다
- ② 글쓴이가 글 전체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생각이다
- ③ 글의 첫 문장이 항상 중심생각이다
- ④ 예시나 수치가 중심생각이다

[문항 9] 중심생각을 찾을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- ① 세부 정보만 보고 중심생각으로 착각하지 않는다
- ② 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찾는다
- ③ 본문에 없는 내용을 더해 해석한다
- ④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내용을 살핀다

[문항 10] 이 글의 중심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요즘 캠퍼스에서는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. 강의 사이 짧은 쉬는 시간에도 비교적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- ① 배달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
- ②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배달 음식 이용이 늘고 있다
- ③ 캠퍼스에는 식당이 전혀 없다
- ④ 학생들은 직접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

01 문장호응이란?

- 여러 문장이 하나의 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,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내용상 서로 잘 연결되어야 한다.
- 이처럼 문장과 문장이 뜻의 흐름 속에서 맞물려 이어지는 것을 문장호응이라고 볼 수 있다.
- 글을 읽을 때는 문장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,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.
- 이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지시어와 접속어이다.

02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

- 지시어는 보통 바로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키지만, 때로는 앞 문장 전체나 더 앞의 내용을 가리키기도 한다.
- 무조건 바로 앞 단어로 단정하면 안 된다.

03 접속어의 역할

- 접속어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관계를 드러내 주는 말이다.
- 접속어를 보면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.
- '그러나·하지만'은 반대되는 내용을, '그래서·따라서'는 원인과 결과를, '반면에'는 대조를 나타낸다.



꼭 확인하기

- 지시어는 항상 바로 앞 단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,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.
- 접속어는 앞뒤 문장의 관계(원인-결과, 대조 등)를 알려주는 신호이다.
- 접속어가 나오면 앞뒤 문장이 같은 방향인지(그래서, 그리고) 반대 방향인지(그러나, 반면에)를 먼저 판단한다.
- 헷갈릴 때는 지시어나 접속어 자리에 정답 후보를 하나씩 넣어 보고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한다.



[문항 1] 다음 중 문장호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문장의 길이를 맞추는 것이다
- ②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내용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
- ③ 단어의 개수를 맞추는 것이다
- ④ 문장 부호를 통일하는 것이다

[문항 2] 다음 글에서 밑줄 친 '그것'이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도서관은 최근 24시간 열람실을 새로 만들었다. 그것은 시험 기간마다 자리 부족을 호소하던 학생들의 요청에서 시작되었다.

- ① 도서관 ② 24시간 열람실 ③ 시험 기간 ④ 학생들의 요청

[문항 3] 다음 문장에 들어갈 접속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이번 학기에는 전공 수업이 유난히 많았다. () 시간표를 짜는 데 애를 먹었다.

- ① 그러나 ② 그래서 ③ 반면에 ④ 예를 들어

[문항 4] 다음 문장에 들어갈 접속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형은 아침형 인간이라 일찍 일어난다. () 동생은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.

- ① 그래서 ② 그리고 ③ 반면에 ④ 왜냐하면

[문항 5] 다음 글에서 밑줄 친 '이런 이유로'가 가리키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참여 동아리 수가 크게 줄었다. 준비 기간이 짧았던 데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이런 이유로 축제 규모가 작년보다 축소되었다.

- ① 참여 동아리 수가 줄었다는 사실 ② 준비 기간이 짧고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
③ 축제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④ 학생들이 축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

[문항 6] 다음 중 접속어와 그 쓰임의 연결이 알맞지 않은 것은?

- ① 그러나 - 앞뒤 내용이 반대될 때
- ② 그래서 - 앞 내용이 원인, 뒤 내용이 결과일 때
- ③ 반면에 - 앞뒤 내용을 대조할 때
- ④ 그리고 - 앞뒤 내용이 반대될 때

[문항 7] 다음 글의 흐름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전공 수업 과제는 분량이 많다. () 미리 계획을 세워 나눠서 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.

- ① 그러나 ② 그래서 ③ 왜냐하면 ④ 예를 들어

[문항 8]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을 때 주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항상 바로 다음 단어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
- ② 무조건 문장의 첫 단어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
- ③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
- ④ 지시어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

[문항 9] 다음 글에서 밑줄 친 '그중 하나'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학생회는 학교생활 개선을 위해 여러 제도를 건의했다. 그중 하나가 셔틀버스 증편이었다.

- ① 학생회
 - ② 학교생활 개선을 위해 건의한 여러 제도
 - ③ 셔틀버스
 - ④ 학교생활

[문항 10] 다음 중 문장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?

- ①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겼다 ② 열심히 공부했다, 그래서 시험을 망쳤다
- ③ 늦잠을 자서 지각했다 ④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렀다

01 맥락이란?

- 맥락이란 글의 앞뒤 상황, 즉 문장이 놓인 전체적인 흐름을 뜻한다.
- 글을 읽을 때에는 문장 하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, 앞뒤 내용과 이어서 이해해야 한다.
그래야 같은 단어나 표현도 글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.
- 예를 들어 같은 '가볍다'라는 말도, 물건에 대해서는 무게가 적다는 뜻일 수 있고, 설명 방식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고 부담이 없다는 뜻일 수 있다.

02 본문에 쓰인 뜻과 알 수 없는 내용 구별하기

- 문제를 풀 때는 본문에 실제로 쓰여 있는 내용만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.
- 조금 그럴듯해 보이거나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라도, 본문에 근거가 없으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.

03 과잉 추론 주의하기

- 본문의 일부 정보를 보고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덧붙여 해석하면 안 된다.
- 글에 한 가지 정보가 나왔다고 해서, 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.



꼭 확인하기

- 맥락은 글의 앞뒤 상황과 전체 흐름을 뜻한다.
- 단어의 뜻은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, 글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.
- 문제를 풀 때는 본문에 실제로 쓰인 내용만 근거로 삼아야 한다.
- 그럴듯해 보여도 본문에 없는 내용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.
- 보기를 본문과 하나씩 대조하며 근거를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.

[문항 1]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수강신청 정정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이다. 이 기간에는 이미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바꿀 수 있다.

- ① 정정 기간에는 새로운 과목만 추가할 수 있다
- ② 정정 기간에는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
- ③ 정정 기간은 일주일이다
- ④ 정정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

[문항 2]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없는 내용은?

동아리방 냉장고에는 '이름을 적지 않은 음식은 정기적으로 정리됩니다'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.

- ① 이름 없는 음식은 정리 대상이 된다
- ② 냉장고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
- ③ 냉장고는 매일 청소된다
- ④ 정리 기준은 이름 표기 여부이다

[문항 3] 다음 글에서 '가볍다'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발표 주제는 무겁지만, 그의 설명 방식은 의외로 가벼웠다. 어려운 개념도 일상적인 예를 들어 쉽게 풀어냈기 때문이다.

- ① 무게가 적다
- ② 이해하기 쉽고 부담스럽지 않다
- ③ 색깔이 연하다
- ④ 가격이 싸다

[문항 4]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학과 사무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,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문의 응대가 어렵다.

- ① 학과 사무실은 24시간 운영된다
- ② 점심시간에는 문의 응대가 어려울 수 있다
- ③ 학과 사무실은 주말에도 운영된다
- ④ 점심시간은 오전에 있다

[문항 5]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없는 내용은?

이번 학기 장학금 신청자가 지난 학기보다 20% 늘었다. 등록금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.

- ① 장학금 신청자가 증가했다
- ② 신청자 증가의 이유로 등록금 부담이 언급되었다
- ③ 신청자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있다
- ④ 지난 학기와 비교한 내용이 나온다

[문항 6] 맥락을 파악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- ① 본문에 쓰인 내용만 사실로 인정한다
- ② 단어의 뜻은 앞뒤 문장을 보고 판단한다
- ③ 그럴듯해 보이면 본문에 없어도 사실로 받아들인다
- ④ 질문이 묻는 내용을 본문에서 직접 찾는다

[문항 7] 다음 글에서 밑줄 친 '거리를 두다'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그는 조별과제에서 항상 한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었다. 설불리 나 서기보다 신중하게 거리를 두는 성격이었다.

- ① 물건을 내려놓다
- ② 사람이나 상황에 쉽게 깊이 개입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다
- ③ 시간을 미루다
- ④ 장소를 옮기다

[문항 8]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기숙사 세탁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. 세탁기 사용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 세탁물을 바로 꺼내야 한다.

- ① 세탁실은 24시간 운영된다
- ② 세탁 후에는 세탁물을 바로 꺼내야 한다
- ③ 세탁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
- ④ 세탁실은 주말에만 운영된다

[문항 9]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없는 내용은?

교양 수업 정원이 초과되어 일부 학생은 수강신청에 실패했다. 학과 사무실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.

- ① 정원 초과로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이 있다
- ② 학과 사무실이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
- ③ 정원이 몇 명 늘어날지 정확히 알 수 있다
- ④ 학과 사무실이 이미 정원을 늘리기로 확정했다

[문항 10] 다음 중 맥락 파악 문제를 풀 때 가장 올바른 접근 방법은?

- ① 보기 중 가장 그럴듯한 것을 직관적으로 고른다
- ② 보기의 내용을 본문에서 직접 찾아 근거를 확인한다
- ③ 본문을 읽지 않고 상식으로 판단한다
- ④ 가장 긴 보기를 정답으로 고른다

01 표와 그래프를 읽는 원칙

- 표나 그래프를 읽을 때는 자료에 직접 제시된 수치와 정보만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.
- 이때는 먼저 제목, 항목, 단위를 확인하고, 무엇을 나타낸 자료인지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.

02 표와 그래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

- 표와 그래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.
 - 어떤 항목의 수치가 가장 많은지, 가장 적은지
 - 두 항목의 수치가 같은지 다른지
 - 어떤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많은지 적은지
 - 두 항목 이상을 더한 값이나 뺀 값이 얼마인지

03 자료에 없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기

- 표나 그래프 문제에서는 자료에 없는 내용을 상식이나 느낌으로 보태면 안 된다. 가장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다.
 - 수치가 많다고 해서 '인기가 많다', '가장 좋다'처럼 해석하기 ✗
 - 표에 한 과목만 적혀 있다고 해서 다른 과목은 싫어한다고 단정하기 ✗
 - 두 수를 더하거나 비교할 때 계산을 틀리기 ✗



꼭 확인하기

- 표와 그래프를 읽을 때에는 제목, 항목, 단위를 먼저 확인한다.
- 자료에 직접 제시된 수치와 정보만 근거로 판단한다.
- '회원 수가 많다'와 '인기가 많다'는 같은 말이 아니다.
- 자료에 없는 내용은 그럴듯해 보여도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다.
- 항목 비교와 합계 계산은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며 판단한다.

[문항 1] 다음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?

이름	좋아하는 과목
민수	국어
영희	수학
철수	영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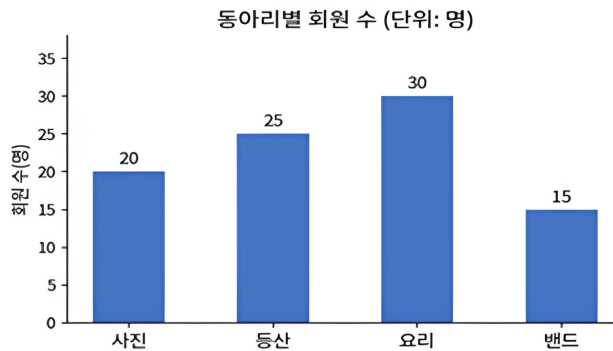
- ① 민수는 수학을 싫어한다 ② 영희는 국어를 좋아한다
 ③ 철수는 영어를 좋아한다 ④ 영희는 과목을 두 개 좋아한다

[문항 2] 다음 표를 보고 이용자가 가장 많은 요일은?

요일	월	화	수	목
이용자수	30명	25명	40명	20명

- ① 월 ② 화 ③ 수 ④ 목

[문항 3] 다음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요리 동아리가 가장 인기가 많다
 ② 밴드 동아리의 인원이 가장 적다
 ③ 사진 동아리보다 등산 동아리 인원이 적다
 ④ 등산 동아리와 밴드 동아리 인원의 합은 50명이다

[문항 4] 위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요리 동아리 인원이 가장 많다
- ② 밴드 동아리가 가장 인기가 많다
- ③ 사진 동아리는 등산 동아리보다 인원이 적다
- ④ 인원 순위는 요리>등산>사진>밴드이다

[문항 2] 다음 표를 보고 이용자가 가장 많은 요일은?

학과	경영학과	컴퓨터공학과	디자인학과
자격증 취득자 수	10명	25명	15명

- ① 경영학과의 취득자 수가 가장 많다
- ② 컴퓨터공학과와 취득자 수가 가장 많다
- ③ 디자인학과와 취득자 수가 가장 적다
- ④ 세 학과의 합은 40명이다

[문항 6] 다음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?

이름	선호하는 운동
민수	축구
영희	수영
철수	축구

- ① 민수와 철수는 같은 운동을 선호한다
- ② 영희는 축구를 선호한다
- ③ 민수는 수영을 선호한다
- ④ 세 사람은 모두 다른 운동을 선호한다

[문항 7] 다음 중 그래프나 표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치를 있는 그대로 확인한다
- ② 합계를 구할 때는 정확히 더한다
- ③ 수치가 크면 '인기가 많다'고 단정한다
- ④ 제시되지 않은 정보는 알 수 없다고 판단한다

[문항 8] 다음 꺾은선그래프를 보고 알 수 없는 내용은?



- ① 화요일과 수요일의 판매 수는 같다
- ② 목요일의 판매 수가 가장 적다
- ③ 월요일보다 화요일의 판매 수가 많다
- ④ 화요일 음료가 가장 인기가 많다

01 순서를 배열하는 기준

- 글의 순서를 배열할 때에는 문장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, 일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생각해야 한다.
- 보통 글은 원인 → 과정 → 결과, 준비 → 실행 → 마무리, 처음 → 중간 → 마지막의 흐름으로 전개된다.

02 순서를 알려 주는 표현

- 글에는 순서를 알려 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.
- '먼저', '그래서', '결국', '마침내', '드디어' 같은 표현은 글의 순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.
- 특히 '결국', '마침내'가 있는 문장은 대부분 가장 마지막에 온다.

03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생각하기

- 순서 배열 문제는 실제 상황을 머릿속으로 따라가 보면 쉽게 풀 수 있다.
- 예를 들어 책을 고르고, 빌리고, 읽고, 반납하는 과정은 일상적인 흐름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.
- 따라서 글의 순서를 정할 때에는 이 일이 현실에서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.



꼭 확인하기

- 순서 배열 문제는 원인 → 과정 → 결과, 준비 → 실행 → 마무리의 흐름을 먼저 생각한다.
- '결국', '마침내', '드디어' 같은 표현이 있는 문장은 대부분 마지막에 온다.
- 실제 상황을 머릿속으로 따라가 보면 자연스러운 순서를 찾을 수 있다.

문제

[문항 1] 다음 글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(가)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(나) 책이 재미있어 보여 골랐다 (다) 다 읽고 반납했다

- ① (나)-(가)-(다) ② (가)-(나)-(다) ③ (다)-(가)-(나) ④ (나)-(다)-(가)

[문항 2] 다음 글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(가)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(나) 발표 주제를 정했다 (다) 발표를 무사히 마쳤다

- ① (나)-(가)-(다) ② (가)-(나)-(다) ③ (다)-(나)-(가) ④ (나)-(다)-(가)

[문항 3] 다음 글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(가) 면접을 봤다 (나) 이력서를 제출했다 (다) 합격 통보를 받았다

- ① (나)-(가)-(다) ② (가)-(나)-(다) ③ (다)-(나)-(가) ④ (나)-(다)-(가)

[문항 4] 다음 글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(가) 물을 끓인다 (나) 라면을 넣는다 (다) 다 익으면 그릇에 담는다

- ① (가)-(나)-(다) ② (나)-(가)-(다) ③ (다)-(가)-(나) ④ (가)-(다)-(나)

[문항 5] 다음 글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(가) 회원 가입을 했다 (나)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다 (다) 동아리 모집 공고를 봤다

- ① (다)-(가)-(나) ② (가)-(나)-(다) ③ (나)-(다)-(가) ④ (다)-(나)-(가)

[문항 6] 다음 중 글의 순서를 배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?

- ① 문장의 길이 ② 원인-과정-결과의 흐름
③ 문장 부호의 종류 ④ 단어의 개수

[문항 7] 다음 중 대체로 가장 마지막 문장에 오는 표현은?

- ① 먼저 ② 그다음 ③ 마침내 ④ 우선

[문항 8] 다음 글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(가)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(나) 첨삭을 받고 여러 번 고쳤다 (다) 최종본을 제출했다

- ① (가)-(나)-(다) ② (나)-(가)-(다) ③ (다)-(가)-(나) ④ (가)-(다)-(나)

[문항 9] 다음 글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(가) 마침내 목표했던 자격증을 취득했다 (나) 매일 꾸준히 공부했다
(다)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다

- ① (다)-(나)-(가)
- ② (가)-(나)-(다)
- ③ (나)-(다)-(가)
- ④ (다)-(가)-(나)

[문항 10] 다음 중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?

- ① 문장을 무작위로 배열한다
- ② 실제 상황을 머릿속으로 따라가 본다
- ③ 가장 짧은 문장을 먼저 배치한다
- ④ 접속어를 무시한다



정답과 해설

제 1장 기초 어휘

학습내용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

- [문항 1] ② | '간과하다'는 어떤 문제를 대충 넘기고 지나침을 뜻한다.
- [문항 2] ① | '도출하다'는 자료나 논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냄을 뜻하므로 설문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낸 문장이 자연스럽다.
- [문항 3] ② | '지양하다'는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 함을, '지향하다'는 나아가려 함을 뜻한다.
- [문항 4] ② | '제고하다'는 정도나 수준을 끌어올림, 즉 '높이다'의 뜻이다.
- [문항 5] ① | '타당하다'는 이치에 맞고 옳음을 뜻한다.
- [문항 6] ③ | '미비하다'는 갖추어야 할 것이 부족함을 뜻한다.
- [문항 7] ① | '부합하다'는 어떤 기준·목표에 들어맞음을 뜻하므로 '계획이 목표에 부합한다'가 자연스럽다.
- [문항 8] ② | '지향하다'는 어떤 목표나 방향으로 나아가려 함을 뜻한다.
- [문항 9] ② | '초래하다'는 어떤 결과·상황을 불러일으킴을 뜻한다.
- [문항 10] ① | '기여하다'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을 뜻하므로 봉사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한 문장이 자연스럽다.

학습내용 혼동하기 쉬운 유의어·반의어

- [문항 1] ② | 기상청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'예측'이 적절하다.
- [문항 2] ② | 사람의 행동(짓)에 대한 까닭이므로 '이유'가 적절하다.
- [문항 3] ① | 사건(화재)의 발생 근본 까닭이므로 '원인'이 적절하다.
- [문항 4] ② | '개선'은 부분적으로 더 좋게 고침, '개혁'은 제도·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꿈을 뜻한다.
- [문항 5] ① | 게임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본 것이므로 '관찰'이 적절하다.
- [문항 6] ② | 기온·강수량 등 수치를 재는 것이므로 '관측'이 적절하다.
- [문항 7] ② | '비교'는 견주는 것, '비유'는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.
- [문항 8] ② | 자동차 상태 전반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므로 '점검'이 적절하다.
- [문항 9] ① | 이탈자 여부(있는지 없는지)를 분명히 하는 것이므로 '확인'이 적절하다.
- [문항 10] ② | '확대'는 범위나 규모를 넓히는 것이다.
- [문항 11] ③ | 증가하던 흐름과 반대되는 상황이므로 '감소'가 적절하다.
- [문항 12] ④ | '개선'(좋아짐)과 반대로 다시 나빠졌다는 뜻이므로 '악화'가 적절하다.
- [문항 13] ② | '추상적'의 반의어는 '구체적'이다.
- [문항 14] ③ | '적절하지 않다'는 곧 '부적절하다'와 같은 뜻이다.
- [문항 15] ① | '복잡하다'의 반의어는 '단순하다'이다.

학습내용**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어휘(다의어) 이해하기**

- [문항 1] ② | ①③④는 '시험·심사에 합격하다'의 뜻이고, ②는 '붙다'의 물리적인 뜻으로 의미가 다르다.
- [문항 2] ② | '큰길로 통한다'는 길이 이어짐을 뜻한다.
- [문항 3] ① | '시간이 걸리다'는 어떤 일에 시간이 들을 뜻한다.
- [문항 4] ② | ①, ③, ④의 '걸리다'는 모두 어떤 물건이 다른 곳에 매달리거나 달려 있는 상태를 뜻하고 ②의 '걸리다'는 병에 들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의미가 다르다.
- [문항 5] ③ | '앞으로 크게 될 인물'은 훌륭하게 성장함을 뜻한다.
- [문항 6] ② | ①③④는 손이나 힘으로 쥐거나 붙잡음을 뜻하고, ②(회의 날짜를 잡다)는 '정하다'의 뜻으로 다르다.
- [문항 7] ① |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서로 관련된 여러 의미를 갖는 것이다.

학습내용**어휘를 상황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기**

- [문항 1] ② | '역할을 맡다'가 자연스러운 짝 표현이다.
- [문항 2] ② | '문제를 겪다'가 자연스러운 짝 표현이다.
- [문항 3] ① | '시험에 임하다'가 자연스러운 짝 표현이다.
- [문항 4] ② | '최선을 다해 성취했다'는 어색하며, '노력했다/준비했다/도전했다'처럼 과정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린다.
- [문항 5] ① | '목표를 세우다'가 자연스러운 짝 표현이다.
- [문항 6] ① | '의견을 반영하다'가 자연스러운 짝 표현이다.
- [문항 7] ① | '책임을 맡다'가 자연스러운 짝 표현이다.
- [문항 8] ② | '겪었다'를 자연스러운 표현인 '거두었다'로 고쳐야 한다.
- [문항 9] ② | 뜻은 맞아도 짝(언어)이 맞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지기 때문이다.

학습내용**사자성어의 뜻과 쓰임**

- [문항 1] ① | '작심삼일'은 결심이 오래가지 못함을 뜻한다.
- [문항 2] ① | '새옹지마'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다.
- [문항 3] ① | '타산지석'은 남의 하찮은 언행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.
- [문항 4] ② | '청출어람'은 제자나 후배가 스승·선배보다 나음을 뜻한다.
- [문항 5] ① | '마이동풍'은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림을 뜻한다.
- [문항 6] ① | '고진감래'는 고생 끝에 좋은 일이 옴을 뜻한다.
- [문항 7] ② | '동상이몽'은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속마음(생각)은 다름을 뜻한다.
- [문항 8] ① | '과유불급'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.
- [문항 9] ② | '백전백승'은 '싸울 때마다 반드시 이김'이 옳은 뜻이며, '짐'으로 연결된 ②가 틀렸다.
- [문항 10] ① | '유비무환'은 미리 준비해 두면 걱정할 일이 없음을 뜻한다.

- [문항 1] ② | '백지장도 맞들면 낫다'는 쉬운 일도 협력하면 더 쉬워짐을 뜻한다.
- [문항 2] ① | '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'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야 손을 씬을 뜻한다.
- [문항 3] ① | '우물 안 개구리'는 넓은 세상을 모르고 좁은 생각에 머무름을 뜻한다.
- [문항 4] ② | '등잔 밑이 어둡다'는 가까이 있는 것을 오히려 잘 모름을 뜻한다.
- [문항 5] ① | '손을 놓다'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는 뜻이다.
- [문항 6] ② | '발이 묶이다'는 사정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함을 뜻한다.
- [문항 7] ① | '손발이 맞다'는 함께 일할 때 마음이나 행동이 잘 맞음을 뜻한다.
- [문항 8] ① | '코가 납작해지다'는 창피를 당해 기가 죽음을 뜻한다.
- [문항 9] ① | '가슴이 뜨끔하다'는 잘못을 지적받아 뜨끔한 느낌이 들을 뜻한다.
- [문항 10] ① | '발을 넓히다'는 관계나 활동 범위를 넓힌다는 뜻이다.

제 2장

기초 국어(맞춤법·띄어쓰기·발음)

- [문항 1] ① | '돼'는 '되어'의 준말이므로 '되어요→돼요'가 자연스럽다. '돼/되'가 헛갈릴 때는 '해/하'를 넣어 보면 된다. '안 해요'가 자연스러우므로 '안 돼요'가 올바른 표현이다.
- [문항 2] ② | '않다'는 '아니하다'의 준말이므로 '포기하지 않았다'가 옳바르다.
- [문항 3] ② | '되여야'의 준말은 '돼야'이므로 '검토돼야 한다'가 옳바르다. '돼'는 '되어'의 준말이다. '돼/되'가 헛갈릴 때는 '해/하'를 넣어 보면 된다. '검토돼야 한다' → '검토해야 한다'가 자연스러우므로 ②가 맞다.
- [문항 4] ② | 선택을 나타낼 때는 '든지'를 쓴다.
- [문항 5] ② | 지난 일에 대한 회상을 나타낼 때는 '던지'를 쓴다.
- [문항 6] ④ | '노력으로써'(수단)가 맞는 표현인데 '노력으로서'로 쓰여 틀렸다.
- [문항 7] ① | '왓지'는 '왜인지'의 준말로 이 문맥에 맞게 쓰였다. '왓지' 외에는 모두 '웬'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.
- [문항 8] ① | 'ㄹ게'가 바른 표현이므로 '갈게'가 옳바르다.
- [문항 9] ④ | 표준 표기는 '며칠'이므로 '몇일'은 틀린 표기이다.
- [문항 10] ② | 바른 표현은 '어이었다'이다.

학습내용**띄어쓰기 기본 원칙과 자주 틀리는 표현**

- [문항 1] ② | 의존명사 '수'는 앞말과 띄어 쓰므로 '할 수 있다'가 올바르다.
- [문항 2] ② | 의존명사 '것'은 앞말과 띄어 쓰므로 '아는 것이 힘이다'가 올바르다.
- [문항 3] ② | '만큼'이 의존명사로 쓰였으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'만'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'필요한 만큼만'이 올바르다.
- [문항 4] ① | '너만큼'의 '만큼'은 체언 뒤에 붙는 조사로 쓰인 예이며, 나머지는 용언 활용형 뒤에 오는 의존명사 용법이다.
- [문항 5] ③ | '지'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쓰므로 '떠난 지 오래되었다'가 올바르다.
- [문항 6] ① | '밖에'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 '너밖에'가 올바르다.
- [문항 7] ① | '커녕'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 '칭찬은커녕'이 올바르다.
- [문항 8] ④ | '먹어 본 적이'처럼 의존명사 '적'은 띄어 써야 하므로 붙여 쓴 ④가 올바르지 않다. '-아/어' 뒤에 오는 '보다'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, 붙여 써도 되므로 '먹어 보다'/'먹어보다' 모두 바른 표기이다.
- [문항 9] ① | 의존명사 '데'는 앞말과 띄어 쓰므로 '공부할 데가 없다'가 올바르다.
- [문항 10] ③ | '지'가 어미로 쓰일 때는 붙여 쓰지만(가는지),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쓰므로(떠난 지) '언제나 띄어 쓴다'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.

학습내용**발음과 표기가 헛갈리는 경우**

- [문항 1] ② | '책상'은 '책', '상' 2음절로 이루어져 있다.
- [문항 2] ② | 받침 ㄱ 뒤에 ㅁ이 와서 비음화가 일어나 [궁물]로 발음된다.
- [문항 3] ② | ㄴ과 ㄹ이 만나 유음화가 일어나 [설랄]로 발음된다.
- [문항 4] ② | 받침 뒤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로 [학교]로 발음된다.
- [문항 5] ② | ㅇ이 뒤 자음을 거세게 만드는 거센소리되기로 [추카]로 발음된다.
- [문항 6] ② | ㄷ이 | 모음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 [가치]로 발음된다.
- [문항 7] ② | 겹받침 중 하나만 소리 나는 자음군 단순화로 [닥]으로 발음된다.
- [문항 8] ② | '낫다'는 병이나 상처가 좋아짐을 뜻하므로 '상처가 다 나았다'가 문맥에 맞다.
- [문항 9] ① | '낳다'는 아기를 출산함을 뜻하므로 '아기를 낳았다'가 문맥에 맞다.
- [문항 10] ③ | '낫다'는 병이나 상처가 좋아짐을 뜻하므로 이 연결이 바르다. (①은 낫다-출산, ②는 낳다-병이 좋아짐, ④는 낳다-출산으로 모두 잘못 연결됨)

제 3장 기초 문법

학습내용 품사와 문장 성분

- [문항 1] ① | 학생, 책, 학교는 모두 사람·사물·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.
- [문항 2] ① | '잘'은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.
- [문항 3] ① | 동작(읽었다)의 주체인 '영희가'가 주어이다.
- [문항 4] ③ | 동작(썼다)의 대상인 '편지를'이 목적어이다.
- [문항 5] ④ | 주어(동생은)의 동작을 설명하는 '일어난다'가 서술어이다.
- [문항 6] ③ | '도서관에서'는 서술어 '읽었다'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.
- [문항 7] ③ | '되다' 앞에서 뜻을 보충하는 '학생이'는 보어이다.
- [문항 8] ② | '그는 학교에 간다'는 목적어 없이 부사어(학교에)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.
- [문항 9] ② | '하늘이 푸르다'는 하늘의 성질(상태)을 나타낸다.
- [문항 10] ④ | 은/는은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이며 서술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연결이 알맞지 않다.

학습내용 조사를 정확하게 쓰기

- [문항 1] ① | '동생과'(함께하는 대상)+'숙제를'(대상)의 결합이 자연스럽다.
- [문항 2] ① | '친구와 함께' 영화를 보러 간 것이므로 '친구와'가 자연스럽다.
- [문항 3] ③ |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행동이 일어난 장소이므로 '에서'가 적절하다.
- [문항 4] ① | 학교라는 도착점을 나타내므로 '에'가 적절하다.
- [문항 5] ② | 버스는 이동 수단이므로 '(으)로'가 적절하다.
- [문항 6] ④ | '친구에게 함께 산책을 했다'는 어색하며 '친구와 함께'가 자연스럽다.
- [문항 7] ③ | 동작이 미치는 대상(동생)에게 장난감을 준 것이므로 '에게'가 적절하다.
- [문항 8] ① | 강의실은 행동이 일어난 장소이므로 '에서'가 자연스럽다.
- [문항 9] ① | '나에게도'처럼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결합이 자연스럽다.
- [문항 10] ④ | 을/를은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이며 방향·수단은 (으)로가 나타내므로 이 연결이 알맞지 않다.

학습내용**높임 표현 정확히 쓰기**

- [문항 1] ② | '꺼서'(주격조사), '진지'(높임 어휘), '드신다'(높임 어휘)가 모두 쓰여 가장 적절하다.
- [문항 2] ① | '오신다'처럼 선어말어미 '-시-'가 자연스럽게 쓰였다.
- [문항 3] ② | 주격조사 '꺼서'와 높임 어휘 '계시다'를 써서 '할머니께서 집에 계신다'로 고치는 것이 바르다.
- [문항 4] ④ | '이름'의 높임말은 '성함'이며 '성명'은 높임 어휘가 아니므로 이 연결이 알맞지 않다.
- [문항 5] ③ |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'-시-'를 쓰지 않으므로 '나는 내일 학교에 가신다'는 어색하다.
- [문항 6] ② | 주체 높임은 문장 속 동작·상태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다.
- [문항 7] ② | '꺼서'와 높임 어휘 '계시다'를 써서 '선생님께서 도서관에 계신다'가 가장 자연스럽다.
- [문항 8] ② | 높임 표현을 쓸 때는 먼저 누구를 높이는 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.
- [문항 9] ④ |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보통 '-시-'를 쓰지 않으므로 '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쓴다'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.
- [문항 10] ③ | 자기 자신에게는 '-시-'를 쓰지 않으므로 '나는 신발을 신으신다'는 어색하다.

학습내용**연결어미와 종결어미, 문장부호 바르게 쓰기**

- [문항 1] ① | '오는데'는 용언 어간 '오-'에 붙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쓴 ①이 올바르다.
- [문항 2] ① | '갈 데가 없다'의 '데'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띄어 쓰였다.
- [문항 3] ① | '모르는 데(장소·상황)가 있으면'처럼 의존명사 '데'가 적절하다.
- [문항 4] ① | '힘들었는데'는 어간에 붙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쓴 ①이 올바르다.
- [문항 5] ④ | ①②③은 사실을 알리는 평서형이고, ④(가자)는 함께하자고 권하는 청유형으로 종류가 다르다.
- [문항 6] ④ | '워자'는 함께하자고 권하는 청유형 종결어미이다.
- [문항 7] ③ | '출발하니'는 묻는 의문형 종결어미이다.
- [문항 8] ③ | 공식적인 안내문에서는 물음표·느낌표보다 마침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.
- [문항 9] ③ | 명령문 '앉아라' 뒤에 물음표를 쓰는 것은 어색하다.
- [문항 10] ④ | 문장의 성격(서술/질문/요청/감탄)에 따라 알맞은 부호를 써야 하므로 '모든 문장 끝에 느낌표'라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.

학습내용 피동과 사동 표현 구별하기

- [문항 1] ② | '문이 닫혔다'는 주어(문)가 동작을 당하는 피동 표현이다.
- [문항 2] ② | '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'는 남에게 행동을 하게 하는 사동 표현이다.
- [문항 3] ② | '나는 문을 열었다'는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능동문으로 피동문이 아니다.
- [문항 4] ③ | '동생이 운다'는 주어가 스스로 하는 행동으로 사동문이 아니다.
- [문항 5] ② | '범인을 잡았다(능동)'를 피동으로 바꾸면 '범인이 잡혔다'가 된다.
- [문항 6] ③ | '아이가 웃는다(능동)'를 사동으로 바꾸면 '엄마가 아이를 웃긴다'가 된다.
- [문항 7] ② | 피동은 동작을 당하는 표현, 사동은 남에게 하게 만드는 표현이다.
- [문항 8] ② | '창문이 닫혔다'가 피동 표현으로 알맞다.
- [문항 9] ② | '엄마가 동생을 울린다'가 사동 표현으로 알맞다.

제 4장 문학

학습내용 문학의 개념과 갈래

- [문항 1] ② | 운율이 있는 갈래는 시이다.
- [문항 2] ② | 소설은 꾸며낸 인물이 겪는 사건을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이다.
- [문항 3] ② | 수필은 글쓴이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이다.
- [문항 4] ② |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대화와 지문으로 이루어진 글이다.
- [문항 5] ③ | 실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쓴 글이므로 수필에 해당한다.
- [문항 6] ② | 꾸며낸 인물과 사건이 중심이므로 소설에 해당한다.
- [문항 7] ③ | 무대 지시문과 인물의 대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희곡에 해당한다.
- [문항 8] ② | 시조의 대표 작가는 윤선도이다.
- [문항 9] ② | 콩쥐팥쥐는 전래동화로 분류되며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다.
- [문항 10] ② | 시조는 고려 말에 형성되어 조선 시대에 크게 발달한 정형시이다.

학습내용 시의 특징(운율, 행과 연, 심상)

- [문항 1] ② | 시의 한 줄을 행이라고 한다.
- [문항 2] ② | 몇 개의 행이 모여 이루는 단위를 연이라고 한다.
- [문항 3] ① |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리듬감이다.
- [문항 4] ② |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느낌이다.
- [문항 5] ② | 청각(목소리)을 촉각(차갑다)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이다.
- [문항 6] ① | 청각(종소리)을 시각(푸른)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이다.
- [문항 7] ④ | '넓은 운동장'은 단순 시각 이미지일 뿐 공감각은 아니다.
- [문항 8] ④ | 행과 연은 시의 구성 단위이다.
- [문항 9] ① | 반복은 운율 형성의 핵심이다.
- [문항 10] ③ | 심상의 종류에는 시각·청각·촉각·후각·미각적 심상이 있으며 '서술적 심상'은 해당하지 않는다.

학습내용 다양한 수사법

- [문항 1] ② | 비교 표지 없이 두 대상을 동일시하는 표현은 은유법이다.
- [문항 2] ② | '~처럼, ~같이'를 쓰는 표현 기법은 직유법이다.
- [문항 3] ② | '~같이'라는 비교 표지가 쓰였으므로 직유법이다.
- [문항 4] ② | 비교 표지 없이 'A는 B다'로 동일시했으므로 은유법이다.
- [문항 5] ③ | 햇발과 샘물이 속삭이고 웃는다고 표현했으므로 의인법이다.
- [문항 6] ① | 기다림의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현했으므로 과장법이다.
- [문항 7] ③ | 시험을 망쳤는데 "잘했다"라고 겉과 속이 반대로 말했으므로 반어법이다.
- [문항 8] ② |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.
- [문항 9] ② | '하루에 백 번도 넘게'처럼 실제보다 부풀려 표현한 것이 과장법이다.
- [문항 10] ④ | '파도가 바위처럼 단단하다'는 비교 표지(~처럼)를 쓴 직유법의 예이며 반어법의 예로 잘못 연결되었다.

학습내용 소설·수필·희곡의 특징과 주제 파악

- [문항 1] ④ | 소설의 3요소는 인물, 사건, 배경이며 운율은 해당하지 않는다.
- [문항 2] ② | '나'가 관찰자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.
- [문항 3] ③ | 인물의 속마음까지 아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.
- [문항 4] ④ | 밖에서 행동만 객관적으로 보여 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.
- [문항 5] ② | 수필은 글쓴이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쓴 글이다.
- [문항 6] ③ | 희곡은 무대 상연을 생각하고 대사과 지문으로 구성된 글이다.
- [문항 7] ② |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이 주제이다.
- [문항 8] ① | 서로 도우며 쌓는 우정이 주제이다.
- [문항 9] ③ | 주제는 본문 근거로 파악해야 한다.
- [문항 10] ④ | 무대 상연 전제는 희곡의 특징이다.

제 5장 화법

학습내용 화법이란 무엇인가 — 상대방과 상황

- [문항 1] ② | 교수님께는 높임말과 완곡한 표현을 갖춘 '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?'가 적절하다.
- [문항 2] ② | 친한 친구 사이에는 편한 반말인 '언제까지 내야 돼?'가 자연스럽다.
- [문항 3] ③ | 화법은 상대방과 상황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것이다.
- [문항 4] ② | 면접에서는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공식적인 표현이 적절하다.
- [문항 5] ③ |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나치게 구어체적인 표현(완전 대박)이 적절하지 않다.
- [문항 6] ② | 선배에게는 높임 표현을 갖춘 완곡한 부탁이 자연스럽다.
- [문항 7] ③ | 교수님께 반말로 "얘기하면 안 돼요?"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아 어색하다.
- [문항 8] ② | 발표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발표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.
- [문항 9] ② | 화법을 판단할 때는 상대방과 상황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.
- [문항 10] ② | 지위와 친밀도에 따라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.

학습내용 부탁하고 거절하는 말하기

- [문항 1] ② | 배려의 표현(죄송하지만)과 함께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.
- [문항 2] ② |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완곡한 표현으로 부탁하는 것이 적절하다.
- [문항 3] ③ | 완곡한 거절은 배려의 표현을 쓰고 필요하면 이유나 대안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.
- [문항 4] ② | 배려 표현과 이유, 다음 참석 의사(대안)를 함께 밝힌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.
- [문항 5] ② | '혹시 ~해줄 수 있을까?'처럼 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적절하다.
- [문항 6] ② | 교수님께는 높임말과 완곡한 표현으로 기한 연장을 부탁하는 것이 적절하다.

학습내용 말하기의 목적 구별하기

- [문항 1] ① | 휴강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말이므로 정보 전달이다.
- [문항 2] ② | 주장(줄여야 한다)과 근거(도움이 됨)를 들었으므로 설득이다.
- [문항 3] ③ | 안부를 묻는 말이므로 친교이다.
- [문항 4] ① | 성적 정정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말이므로 정보 전달이다.
- [문항 5] ③ | ①②④는 사실을 안내하는 정보 전달이고, ③은 가입을 권하는 설득이므로 목적이 다르다.
- [문항 6] ③ | 일정과 장소를 있는 그대로 안내하는 것은 정보 전달에 해당하며 설득하는 말하기가 아니다.

학습내용 같은 말, 다른 의미 — 상황에 따른 효과

- [문항 1] ② | '잘한다'는 상황에 따라 칭찬도, 비꼬는 말도 될 수 있다.
- [문항 2] ② | 발표를 망치고 무표정하게 말했으므로 비꼬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.
- [문항 3] ② | '여기 좀 어두운 것 같네'는 불을 켜 달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다.
- [문항 4] ① |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다.
- [문항 5] ② | 한숨 섞인 대답은 불만이나 소극적 뜻일 수 있다.
- [문항 6] ④ | 수학적 사실 문장은 의미 변화가 거의 없다.

제 6장 문해력

학습내용 중심생각 찾기

- [문항 1] ② |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협업과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중심생각이다.
- [문항 2] ② | 기말고사 기간 도서관 좌석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중심생각이다.
- [문항 3] ① | 온라인 강의의 편리함(장점)과 소통의 아쉬움(한계)을 함께 다루고 있다.
- [문항 4] ② | 발표는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(목소리, 속도, 시선)도 중요하다는 것이 중심생각이다.
- [문항 5] ② | 아르바이트 경험이 시간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심생각이다.
- [문항 6] ② |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별과제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 중심생각이다.
- [문항 7] ② | 학교 식당 운영 정보를 더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 중심생각이다.
- [문항 8] ② | 중심생각은 글쓰기가 글 전체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생각이다.
- [문항 9] ③ | 본문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더하면 안 되므로 이는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다.
- [문항 10] ② |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배달 음식 이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 중심생각이다.

학습내용 문장호응 이해하기

- [문항 1] ② | 문장호응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내용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.
- [문항 2] ② | '그것'은 바로 앞에 언급된 '24시간 열람실'을 가리킨다.
- [문항 3] ② | 원인 뒤 결과가 오므로 '그래서'가 맞다.
- [문항 4] ③ | 형과 동생의 습관이 대조되므로 '반면에'가 적절하다.
- [문항 5] ② | '이런 이유'는 준비 기간·예산 부족을 가리킨다.
- [문항 6] ④ | '그리고'는 반대 관계에 쓰지 않는다.
- [문항 7] ② | 앞뒤가 반대 흐름이므로 '그러나'가 맞다.
- [문항 8] ③ | 지시어는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.
- [문항 9] ② | '그중 하나'는 여러 제도 중 하나를 뜻한다.
- [문항 10] ② | '열심히 공부했다'와 '시험을 망쳤다'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 호응이 부자연스럽다.

학습내용**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**

- [문항 1] ② | 정정 기간에는 취소·변경이 가능하다.
- [문항 2] ③ | 냉장고 청소 주기는 본문에 없다.
- [문항 3] ② | '설명 방식이 가볍다'는 이해하기 쉽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뜻이다.
- [문항 4] ② | 점심시간에는 문의 응대가 어렵다는 내용이 본문에 있다.
- [문항 5] ③ | 20%가 늘었다는 비율만 나올 뿐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다.
- [문항 6] ③ | 본문에 근거 없는 추측은 안 된다.
- [문항 7] ② | '거리를 두다'는 상황에 쉽게 개입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는 뜻이다.
- [문항 8] ② | 세탁 사용 후 바로 세탁물을 꺼내야 한다는 내용이 본문에 있다.
- [문항 9] ④ | 정원 확대를 '검토 중'이라고만 했을 뿐 늘어날 정확한 정원 수는 알 수 없다.
- [문항 10] ② | 맥락 파악 문제는 보기의 내용을 본문에서 직접 찾아 근거를 확인하며 풀어야 한다.

학습내용**표·그래프 자료 정확하게 읽기**

- [문항 1] ③ | 표에 직접 제시된 정보는 '철수는 영어를 좋아한다'뿐이며, 나머지는 자료에 없는 내용을 추측한 것이다.
- [문항 2] ③ | 수요일 이용자 수가 가장 많다.
- [문항 3] ② | 밴드 동아리의 인원이 가장 적다는 사실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.
- [문항 4] ② | 밴드 동아리 인원이 가장 적으므로 '가장 인기가 많다'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.
- [문항 5] ② | 컴퓨터공학과와 자격증 취득자 수가 가장 많다.
- [문항 6] ① | 민수와 철수는 모두 축구를 선호하므로 같은 운동을 선호한다.
- [문항 7] ③ | 수치가 크다고 곧바로 '인기가 많다'고 단정하면 안 된다.
- [문항 8] ④ | 그래프에서는 판매 수량만 알 수 있을 뿐 '인기'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.

학습내용**글의 순서 파악하기**

- [문항 1] ① | 책 고르기→빌리기→반납하기 순이다.
- [문항 2] ① | 주제 정하기→자료 준비→발표 마치기 순이다.
- [문항 3] ① | 이력서 제출→면접→합격 통보 순이다.
- [문항 4] ① | 물 끓이기→라면 넣기→그릇에 담기 순이다.
- [문항 5] ① | 모집 공고 보기→가입→활동 참여 순이다.
- [문항 6] ② | 글의 순서는 원인→과정→결과(혹은 준비→실행→마무리)의 흐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.
- [문항 7] ③ | '마침내'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대체로 가장 마지막 문장에 온다.
- [문항 8] ① | 작성→첨삭→최종 제출 순이다.
- [문항 9] ① | 결심→공부→자격증 취득 순이다.
- [문항 10] ② | 순서 배열 문제는 실제 상황을 머릿속으로 따라가 보며 푸는 것이 효과적이다.

기초학습 교재 국어

초판 인쇄 2026.8.20

초판 발행 2026.8.20

연구원 | 박양순

발행처 | 울산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

주소 |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01

전화 | 052) 230-0592

